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와 척도(scale)개념

김 윤신, 이 정민(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서론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는 주로 부정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극성(polarity)을 갖는 언어표현이다.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극어현상에 대한 연구는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부정극어현상이 언어학의 한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과 모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부정극어 현상을 통사론적 현상으로만, 또는 의미론적 현상으로만, 아니면 화용론적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부정극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Fauconnier(1975)가 주장한 화용상의 척도(scale)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극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척도가 존재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극어가 나타나는 문장의 술어와 부정극어 사이의 관계도 척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부정극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도 또한 척도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Ladusaw(1979)의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나 Kadmon & Landman(1993)의 확대(widening)와 강화(strengthening)의 개념들도 모두 척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현상의 가장 중요한 유발자(trigger)인 척도(scale)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선 부정극어현상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정극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어서 부정극어 형성의 중요한 특징이며 척도를 유발하는 양보(concession)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부정극어와 척도개념의 관련성을 위주로 부정극성의 유발자로서의 척도개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밝힌 Fauconnier(1975)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부정극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부정극어에 자주 사용되는 수량표현과 척도개념, 비한정(indefinite) 표현이나 의문사, 그리고 부정극어로 사용되는 통사론적으로 한정적인 표현 척도개념과 척도개념에 대하여 각각 함께 살펴보겠다.

2. 부정극어현상

2.1. 부정극어의 분포

부정극어는 화자가 '최대의 가능성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요소마저 부정하여 자신이 부정하는 바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표현이다. 부정극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극어라 함은 부정(negation)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정극어는 대부분의 부정과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극어는 일반적으로 부정문에 나타나는 어휘항목으로 간주된다.

(1) (a) I don't have any book.

(b) 나는 책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정극어의 분포는 단순히 부정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문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극어가 나타난다.

(2) (a) Before anyone enters, he must go out.

(b) 아무도 들어오기 전에 그는 나가야만 한다.

(3) Do you have any book?

이러한 예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정극어가 표면적인 부정의 맥락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정함축(negative implicature)¹⁾과 연관된 요소들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정극어는 부정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들과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before절이나 '-전에'절, 그리고 영어의 의문문 등은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아님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부정극어는 그 분포에 있어서 영어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1) Linebarger(1987)는 부정극어를 허용하는 맥락에 대하여 두가지 제약을 설정하였다. 부정극성현상은 진리조건적 의미에만 의존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구조적·화용론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부정함축(negative implicature)로 설명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문장이 그 문장과 진리치가 일치하는 부정의 명제를 함축할 경우, 즉 부정함축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정극어가 간접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a) 아무 책도 없니?/*있니?

(b) 아무 책이나 없니?/있니?

한국어의 부정극어는 긍정의 의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정의 의문문에는 나타난다. 따라서 의문문이라는 맥락이 부정극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형태소가 부정극어를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부정극어는 영어의 부정극어와 달리 부정의 요소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양보(concession)

Lee(1996)는 부정극어현상을 양보(concession) 개념과 임의의 선택 개념을 근거로 부정극어현상을 설명한다. 특히 양보의 개념은 한국어의 보조사인 '-도'나 영어의 'even' 등에 의해 실현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최대의 가능성을 지닌 것' 마저 부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극어의 특성과 양보의 개념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정극어가 척도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보조사 '-도'의 의미를 살펴 부정극어와 양보개념의 관련성을 알아보겠다.

한국어의 보조사 '-도'는 포함(inclusion)과 양보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 Lee(1996)는 다음과 같이 한정적(definite)이고 특정적(specific)인 명사구와 결합할 경우에는 맥락에 관계없이 포함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²⁾.

(4) (a) 영희도 왔다.

(b) 영희도 안왔다.

이와 달리 '-도'가 비한정적(indefinite)이고 불특정적(non-specific)인 표현들, 예를 들어 '수량표현+명사'와 같은 구절은 긍정의 맥락에서는 불가능하고 부정의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부정극어로 나타난다고 한다.

2) 이와 같은 포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접(disjunction)의 논리접속사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인석(1973)은 '-도'는 술어의 집합에 속하는 개체가 들이상이므로 적어도 주어와 지시하는 개체 이외에 다른 개체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1) (a) 미영이도 학생이다.

(b) $\exists x[S(x) \wedge (m \neq x) \wedge S(m)]$

(S: 학생이다, m: 미영)

- (5) (a) *한 친구도 왔다.
 (b) 한 친구도 안왔다.

(5b)에서 올 것으로 기대되는 친구의 최소의 숫자가 ‘하나’이다. 올 것으로 기대되는 더 많은 친구의 숫자는 맥락에서 척도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라는 숫자마저 부정된다면 그 척도상에 존재하는 친구의 더 많은 숫자는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척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는 함의(entailment)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의 맥락에서는 ‘-도’가 양보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부정극어나 긍정극어에 필요한 척도도 유발하지 못한다.

양인석(1973)도 ‘-도’가 붙은 요소가 극어와 같이 극단적 가치를 언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양보를 나타내는 ‘even’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따라서 ‘-도’는 최소의 가능성이나 최대의 가능성을 지닌 요소마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긍정/부정극어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와 결합한 요소에 대하여서도 술어부분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결합한 요소보다 척도상 하위나 상위에 있는 요소는 물론 마찬가지로 술어부분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a)의 ‘한사람도’는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숫자이고, (7a)의 ‘가장 나쁜 사람도’는 영희가 가장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즉 좋아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 (6) (a) 이곳에 한사람도 오지 않았다.
 (b) Even a person didn't come here.
 (7) (a) 영희는 가장 나쁜 사람도 좋아한다.
 (b) Young-hee even likes the worst man.

이환목(1982)은 Montague이론에 입각하여 ‘-도’를 입력표현의 통사범주를 출력표현으로 그대로 전승시키는 특별한 함수로 함의적 의미만 그것이 속한 문장 속으로 끌어들이는 연의미를 갖지 않는 수식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극어형성의 ‘-도’는 화용론상의 척도에서 양극에 해당하는 표현을 입력으로 취한다고 했다.

- (8) (a) 이곳에 한사람도 오지 않았다.
 (b) 영희는 가장 나쁜 사람도 좋아한다.

(6a)와 (6b)는 모두 수량의 척도와 인간성의 척도에서 극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환목

(1982)는 부정극어나 긍정극어를 형성하는 요소인 ‘-도’가 양보의 개념으로 인해 척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극어형성 보조사 ‘-도’는 기본적으로는 동일성과 첨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술어의 집합에 속하는 다른 개체의 존재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극어로 사용되는 말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척도개념과 관련지어 극어에 해당하는 요소를 화자의 화용상의 척도에서 양극단의 하나에 위치한 것과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를 사용한 극어는 그 요소를 지칭하는 것 이외의 요소들과 함께 이루어진 척도상의 양극단 위치 가운데 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는 부정극어에 척도개념을 유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척도원리

Fauconnier(1975)는 극성(polarity)현상을 통사론적인 부정극어현상과 의미·화용론적인 부정극어현상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표준극어(standard polarity item)라고도 하는 통사론적인 부정극어는 부정극어와 함께 나타나야만 하는 제약을 받지만 의미·화용론적인 부정극어현상은 그러한 제약이 없이 부정의 맥락이나 긍정의 맥락에서나 모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정이나 긍정이라는 맥락만으로는 극성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정과 긍정의 맥락 보다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화용론상의 원리로 부정극어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9) (a) Alex can't solve (even) a problem.

(b) Alex can lift (even) 100kg weight.

이러한 예문들의 부정과 긍정맥락의 변화는 문법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미상의 변화나 화용론상의 부적절성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9)의 예문들에서 나타나는 양보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없고 만약 ‘even’이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된다.

(10) (a) Alex can solve (*even) a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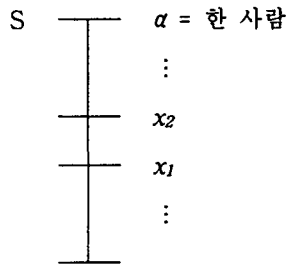
(b) Alex can't lift (*even) 100kg weight.

(10)의 예문들은 단순히 Alex가 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것과 100kg을 들 수 없었음을 의

미할 뿐 부정극어나 긍정극어가 사용되어 나타나는 전체적인 부정이나 긍정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Fauconnier(1975)는 이러한 부정극어현상을 명제도식(propositional schema), 화용론상의 척도(pragmatic scale), 화용론상의 가정을 나타내는 척도(scale)원리로 설명한다.

(11) (a) 학교에 올 학생 수의 척도 S³) : x_1 이 x_2 보다 많다.



(b) 명제도식 $R(x)$: 학교에 학생이 x 사람 오지 않았다.

(c) 척도원리: If x_2 is lower than x_1 on the scale S, then $R(x_2)$ implicates $R(x_1)$.

(d) 추론: If R holds for the highest element on S, it holds (by implicature) for all elements on S. ($R(\alpha)$ implicates $\forall xR(x)$).

(e) 학교에 학생이 한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부정극어가 척도상 가장 윗부분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척도상의 가장 윗부분의 요소를 부정함으로써 하향식 추론에 의하여 그보다 하위의 요소들에 대한 부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Ladusaw(1979)가 주장한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DE) 연산자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Ladusaw(1979)는 Fauconnier(1975)를 근거로 부정극어의 허용조건으로 하향함의 연산자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즉 부정극어는 하향함의 연산자의 영역 안에 존재하면 허용된다. 하향함의 연산자는 부정(negation)과 같이 함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2) O is a DE operator iff $A \Rightarrow B$ then $O(B) \Rightarrow O(A)$.

(13) (a) 수영한다_x \Rightarrow 움직인다_x

(b) 나는 움직일 수 없다 \Rightarrow 나는 수영할 수 없다.

3) Fauconnier(1975)는 긍정극어의 화용론상의 척도와 부정극어의 화용론상의 척도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지 그 추론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하향함의 맥락이 부정극어의 절대적인 허용조건은 될 수 없지만 부정극어의 척도상의 위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절대적인 부정극어의 허용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부정극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가 그 문장과 연관되어 있는 명제식과 척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의 추론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향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명제나 술어에 대한 척도의 개념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4. 부정극어의 구성요소와 척도개념

4.1. 수량표현이 쓰인 부정극어

부정극어가 척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정극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가장 흔하게 부정극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수량표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4) (a) 교실에 개미 한 마리도 없다.
- (b) 영화는 동전 한푼도 없다.
- (c) 철수는 세 문제도 못 풀었다.
- (15) (a) 교실에 개미 한 마리 없다.
- (b) 영화는 동전 한푼 없다.
- (c) 철수는 세 문제 못 풀었다.

수량표현은 그 자체가 매우 명백한 양적인 척도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 화역에서 제한한 정도까지를 수량을 나타내는 척도로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척도상의 양극 중의 하나인 ‘하나’는 어떠한 수량 척도에서건 이미 확정된 것이다. ‘개미 한 마리’, ‘동전 한푼’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부정극어를 형성한다. Lee(1996)는 ‘개미 한 마리’와 같은 너무도 미미한 존재가 없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더욱 분명하고 큰 존재는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척도를 유발하는 양보개념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와 함께 나타나지 않아도 척도개념을 유발하여 부정극어

를 형성하는 굳어진(frozen) 표현이다.

그러나 (14c)와 같이 명백하게 척도상의 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 따라서 수량척도상의 극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도'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만약 '-도'가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15c)와 같이 '세 문제'라는 명사구가 척도를 유발하지 못하여 부정극성을 지닌지 못한다. (15c)가 사용되는 맥락에서는 '세 문제'는 문제풀이에 참여하고 있는 철수나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최소한의 문제 수인 것이다. 그러나 (14c)와 같은 문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량표현을 사용하는 부정극어는 부정극어의 극성을 유발하는 척도개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와 같이 적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주로 부정극어를 이루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부정극어는 맥락에 의해 제약받는 수량척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4.2. 비한정 표현이 쓰인 부정극어

수량표현 뿐만 아니라 부정극어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들이 비한정 표현과 의문사에 기인한 표현들이다. Lee(1996)는 한국어에서 '아무'라는 비한정표현과 '무엇, 어느' 등의 의문사와 형태가 같은 계열의 비한정 표현이 보조사 '-도'와 결합하여 부정극어를 형성하는 것은 양보에 근거한 임의의 선택(arbitrary choice)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수량표현들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척도와 직접 관련지을 수가 없다.

(16) (a) 영화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b) 영화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보와 임의의 선택의 개념에서 출발한 부정극어는 명사가 나타내는 외연집합의 특정원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명사구가 지시하는 집합은 제한된 집합이 아니라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집합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명히 다음과 같은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극어는 분명히 양적인 척도에 의해 유발되는 반면 임의의 선택과 관련된 부정극어는 단순히 양적인 척도와 관련시킬 수 없고 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에 적용된다⁴⁾.

(17) (a) 철수는 아무 책도 읽지 않았다.

4) 이영현(1983)은 양보와 임의의 선택에 근거한 부정극어 '아무도'를 '한 사람도'와 동일한 양화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여 '아무도'를 존재양화사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아무도'와 '한 사람도'의 분명한 의미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철수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17a)는 철수가 책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읽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17b)는 철수가 수량의 측면에서 한 권도 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17a)는 분명 양적인 척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Lee(1996)는 이와 같이 임의의 선택을 나타내는 비한정 표현이나 의문사로 구성되는 부정극어는 양이 아닌 질적인 척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의'라는 것은 선택하는 요소의 내용이나 질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 '임의'로 선택된 요소는 그 요소의 화자에 대한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임의의 선택은 상당히 가벼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정극어의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수량표현으로 구성되는 부정극어는 양적인 척도에 근거하고 비한정 표현이나 의문사로 구성되는 부정극어는 질적인 척도에 근거하고 있다. 비한정 표현이나 의문사로 구성되는 부정극어는 결합하는 보조사 '-도'의 양보의 의미에 근거한 임의의 선택을 나타낸다. 이러한 임의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질적인 척도상의 극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량표현에 의한 부정극어이든 임의의 선택과 관련된 표현에 의한 부정극어이든 모두 문장이 나타나는 맥락과 관련있는 척도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부정극어의 유발자로서의 척도개념은 문장이 나타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의 선택을 비한정적 표현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극어와 연관된 척도의 성격이 결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개념상의 것임을 분명히 한다.

4.3. 한정적 표현이 사용된 부정극어

지금까지는 수량표현과 임의의 선택을 나타내는 비한정표현들로 이루어진 부정극어와 척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한정적인 최상급의 표현이 부정극어로 쓰인다. 특히 영어의 최상급표현은 정관사인 'the'를 동반하는 통사론적으로 한정적인 표현이다.

(18) (a) Alex can't look good in the most elegant suit.

(b) Alex can't solve the simplest problem.

그런데 이러한 한정적인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고 불특정적(non-specific)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상급표현들은 통사론적으로는 한정적으로 나타날지라도 의미론적으로 비한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19) (a) Alex can't look good in the most elegant suit, *whatever it may be*.

(b) Alex can't solve the simplest problem, *whatever it may be*.

그런데 최상급표현은 그 자체가 분명한 척도개념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양보개념을 나타내는 'even'을 생략하고 쓴다⁵⁾. 즉 한국어의 '하나'와 관계된 부정극어와 같이 굳어진(frozen) 부정극어표현이다. 따라서 최상급표현이 지시하는 바는 척도상으로는 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지는 않는 것이다. (19)의 예문들도 실제로 어떤 옷을 보고, 또는 어떤 문제를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척도는 근본적으로 개념상의 것이므로 척도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 지정된 고유명사나 지시사를 동반한 명사구와 같은 경우 부정의 맥락에서 척도개념을 유발하더라도 결코 부정극어가 아니다.

(20) (a) Even John can't understand *Aspects*.

(b) Even John can understand *Aspects*.

(21) (a) Even that person didn't fall down.

(b) Even that person fell down.

(20)과 (21)에서는 동일한 명사구들이 부정과 긍정의 맥락에서 모두 부정극성과 긍정극성을 지니고 나타난다. 부정극어나 긍정극어라 함은 각각 부정의 맥락이나 긍정의 맥락에서 부정극성이나 긍정극성을 지니는 특정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떠한 맥락에서든지 나타나서 부정극어도 되고 긍정극어도 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a)과 같은 경우 John이 *Aspects*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맥락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만 양보를 나타내는 'even'이 척도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는 (20b)는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21a)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가장 넘어질

5) 한국어의 최상급표현은 영어의 최상급표현과 달리 굳어진 부정극어가 아니다. 양보의 개념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척도를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도'가 생략되고 격조사와 결합하면 단순한 목적어로서 어떤 상태나 사건을 나타낼 뿐이다.

(1) (a) 영화는 가장 쉬운 책도 읽지 못한다.

(b) 영화는 가장 간단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

(2) (a) 영화는 가장 쉬운 책을 읽지 못한다.

(b) 영화는 가장 간단한 문제를 풀지 못했다.

것 같은 사람일 경우, 그러한 맥락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역시 이러한 경우에 (21b)는 불가능하다. 결국 엄격히 말하자면 의미론적으로도 한정적인 구체적인 지시체를 갖는 표현들은 부정극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맥락의 상황에서만 같이 동반되는 양보개념을 나타내는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 척도개념을 바탕으로한 부정극어효과를 나타낼 뿐인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22) (a) 철수도 *Aspects*는 이해못한다.

(b) 철수도 *Aspects*는 이해한다.

(23) (a) 저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다.

(b) 저 사람도 넘어졌다.

결론적으로 개념상의 존재인 척도와 관계되는 부정극어표현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수량표현, 비한정표현, 그리고 최상급표현 등과 같은 의미론적으로 비한정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5. 결 론

이상으로 부정극어와 척도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정극어는 화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척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척도개념이 없는 극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의 수단을 통한 화자의 의견관찰도 불가능하다. 양보를 통해 화자는 척도를 도입하고 그 척도상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를 부인함으로써 척도에서 아래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척도상의 요소를 일일이 하나씩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또한 강력한 표현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부정극어현상을 유발하는 척도는 화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부정극어표현으로는 의미론적으로 비한정적인 표현들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척도는 그 화자가 참여하고 있는 맥락의 영향을 받고 그 구성요소에 따라서 양적인 척도와 질적인 척도가 선택된다.

참 고 문 헌

- 김윤신(1995), '아무'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양인석(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어학연구』 9-2, 서울대학교.
- 이영현(1983), 양화사 아무의 의미분석, 『언어』 8-1, 한국언어학회.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국어학』 22, 국어학회.
- 이관목(1982), 극어형성토씨 '-도', 『한글』 176, 한글학회.
- 최현배(1946), 『우리말본』, 재판, 서울 : 정음사.
- 홍사만(1983), 『국어특수조사론』, 서울 : 학문사.
- Baker, C.(1970), Double Negative, *Linguistic Inquiry* 1-2.
- Fauconnier, G.(1975), Polarity and the Scale Principle, *CLS* 11.
- Kadmon, N. & F. Landman(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 Ladusaw, W.(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ee, Chungmin(1993), Frozen Expressions and Semantic Representation, *Language Research* 29-3.
- _____ (1993), Negative Polarity Item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Sciences*, Vol. 18.
- Linebarger, M. C.(1987), The Grammar of Negative Polarity, PhD. Dissertation, MIT.